

집 팔라더니... 靑 다주택자 8명 3년간 아파트값 평균 7.3억 ↑

일부 참모진 청와대 권고에 소극적
경실련 '참모 교체' 기자회견 열어
"국민 원하는 투기근절대책 마련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회원들이 1일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열린 '청와대 다주택 공직자 주택처분 촉구' 기자회견에서 주거 격차를 알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 방지 차원에서 연이어 정책을 내는 가운데 두 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일부 참모진에 대한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집값 안정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음에도 일부 청와대 참모진은 집을 팔지 않고, 소극적인 태도로 임한 데 따른 비판이다.

지난해 12월 노영민 비서실장은 수도권과 투기지역에 두 채 이상 집이 있는 참모들은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6개월 내 한 채를 매각하라고 권고했다. 당시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 두 채 이상 집을 보유한 비서관급 이상 참모는 11명'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영민 실장의 다주택 매각 권고를 이행한 참모진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1일 공개한 올해 3~6월 청와대 공직자 재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내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고위 공직자는 8명이다.

이들이 보유한 아파트 가격은 2017년 5월 기준 94.3억에서 올해 6월 기준 152.7억으로 상승했다. 1명당 평균 7.3억(62%) 상승한 수치다. 같은 날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 수도권 집값은 0.25→0.49%, 지방은 0.03→0.33%로

5월과 비교할 때 상승 폭이 커졌다. 경실련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1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이 뛰는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다면, 다주택 보유 청와대 참모들을 즉시 교체하고 국민이 원하는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내놓아라"고 촉구했다. 정부의 연이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도 청와대 참모들은 솔선수범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가운데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일부 청와대 참모와 관련한 다주택 보유 논란에 일침을 가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지난달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일부 청와대 참모가 노 실장 권고에도 다주택을 보유한 데 대해 "집을 팔면 좋았겠는데, 그 점은 저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청와대는 논란에도 "권고는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다주택자 참모 논란과 관련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특별히 언급할만한 내용은 없다"면서도 "(노 실장이 지난해 말 참모들에게 한 권고는) 당연히 유지된다. 지금도 그 권고를 이행한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노 실장의 권고는) 법적 시한으로 6개월을 제시하고 그 안에 반드시 팔고 신고하라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안다. 각자 사정에 따라 권고한 대로 집을 팔아야 하지 않겠나"며 "말 그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이다. 당시 발표한 내용 그대로이고, (노 실장이 권고한 시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관련 내용이) 변경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상조 정책실장은 같은 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가운데 다주택 보유 논란에 대해 "국민께서 감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일관되게 집행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국민들에게 가장 어필하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엔택트 마케팅 등 中 공략 코트라, 무역투자 전략회의

中, 1500조 슈퍼경기부양책 발표
기업협력·투자유치 등 수출기회로

KOTRA(코트라)가 지난달 30일 온라인으로 중국지역 무역투자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5월,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에서 8조5000억 위안(약 1500조 원) 규모 슈퍼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인프라, 소비, 민생 분야에 예산을 집중투자해 성장 불씨를 살리고 미래 동력까지 마련하겠다는 중국의 전략은 우리 수출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

코트라는 이번 회의에서 ▲중국 소비 진작책을 활용한 엔택트 마케팅 ▲GVC 재편에 따른 중간재 진출 ▲중국 산업정책과 연계한 한·중 기업 협력 ▲수요 맞춤형 투자유치 등 하반기 중국 시장을 공략할 '4대 전략'을 논의했다. 권평오 사장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중국 현지 변화를 빠르게 감지하고 비즈니스 기회로 활용하자"고 강조했다.

코트라는 엔택트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월 중국 6개 거점 무역관에 K-스튜디오를 구축했다. K-스튜디오는 화상상담과 왕홍 생방송 등 디지털 마케팅을 위한 상설 비즈니스 공간이다. 소비재뿐 아니라 소재·부품·장비

등 중간재 기업도 온라인으로 현지 바이어와 소통할 수 있다. 중국 무역관은 내수기업 1000개를 지원해 수출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코트라의 상반기 중국지역 긴급 마케팅 성약액 중 80%는 자동차부품 등 중간재였다. 코트라는 GVC 재편에 대비해 글로벌파트너링 사업을 자동차·조선기자재 위주에서 항공·가전·기계·반도체 분야로 넓힌다. 중국 공급망 전환에 따른 대체 수요도 발굴해 중간재 수출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기술집약 업종은 국내 복귀를 도모해 공정별 안정적 생산여건을 조성하고 국내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기울인다.

중국의 산업 육성전략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5G, AI, 산업인터넷망, 빅데이터, 특고압 설비, 고속철도·케고교통, 전기차충전소 등이 중국 정부가 제시한 신(新) SOC 7대 분야다. KOTRA는 해당산업을 면밀히 분석해 한국기업의 진출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클라우드, AI, 로봇, 신소재, 측정검사기기 등 양국간 협력 가능성이 큰 분야에서 기회를 발굴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수정 발표했다.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은 1%로 예상했다.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양성운 기자 ysw@



권평오 KOTRA 사장(오른쪽)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농진청, 도라지 표준유전체 세계최초 해독

우수 유전자, 종자개발 등에 사용

농촌진흥청은 세계 최초로 도라지 표준유전체를 해독하고 도라지 사포닌 생산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을 발견했다고 1일 밝혔다. 표준유전체란 특정 생물종을 대표할 수 있는 표준이 되는 유전체 정보를 말한다.

포스트게놈 다부처유전체 사업을 통한 유전체 해독은 생명체가 가진 유전자의 종류와 개수, 구조, 기능 등을 밝히는 연구로, 우수한 유전자를 활용하여 종자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토종 품종 유전체 해독을 다른

나라가 먼저 할 경우, 신품종을 개발할 때 로열티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전자원 주권확보 차원에서 꼭 필요한 연구다.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은 농식품부, 농진청, 과기부 등 7개 부·청이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하는 다부처 공동사업으로, 농촌진흥청은 8년간 농작물, 가축, 곤충 등 우리 고유자원 40작목의 유전체 해독을 담당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품종인 장백도라지를 선정, 유전체 680Mb를 해독하고 유

전자 40만18개를 발굴했다.

도라지의 주요 약리물질인 사포닌의 대사경로를 분석한 결과, 기관지 보호 효과가 뛰어난 베타아미린에 관여하는 24개 유전자를 새롭게 밝혔다.

도라지와 인삼은 다른 종류의 사포닌을 생산하며, 여기에는 4개의 유전자가 관여하는 것도 밝혀냈다. 도라지 사포닌은 스쿠알렌부터 베타아미린의 대사경로를 갖는 올레아닌형 사포닌이며, 스쿠알렌부터 담마레네디올의 대사경로를 갖는 담마레닌형 사포닌이다.

/한용수 기자 hys@

해수욕장 인명사고 유발 '이안류' 주의

해수부, 이안류 지수서비스 제공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도록 7월1일부터 '안전해' 앱과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을 통해 이안류 지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안류는 해안 가까이에서 파도가 부서지면서 육지 쪽으로 밀려든 바닷물이 좁은 폭을 통해 다시 바다로 빠르게 빠져 나가는 흐름으로, 얇은 곳에 있던 해수욕객을 순식간에 수심이 깊은 먼 바다로 이동시켜 인명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이안

류로 인한 구조자수는 963명에 달하며, 이안류는 파도가 잔잔하거나 날씨가 맑은 날에도 갑자기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립해양조사원은 2011년 부산해운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국 7개 해수욕장에 대해 실시간 이안류 감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강원도 속초해수욕장을 추가해 총 8개 해수욕장 이안류 지수를 확대해 제공한다. /한용수 기자

"20% 할인된 가격에 한식 즐겨요"

농식품부 '2020 코리아 고메위크'

전국 한식당 250여 곳에서 최소 20%의 할인해주는 등 한식 소비 촉진 행사가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외식 소비를 극복하고 한식업계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2020 코리아 고메 위크(Korea Gourmet Week)'를 7월3일~30일까지 지역별로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행사는 국내 주요 한식당에서 진행되는 외식소비 촉진 행사로,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외식단체를 통해 ▲음식 덜어먹기 ▲위생적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쓰기 등 식사문화 3대 개선과제를 지키는 한식당 250여 곳이 참여한다.

행사는 서울서울(7.3~7.16)을 시작으로 부산·대전(7.10~7.23), 광주·대구(7.17~7.30) 소재 한식당에서 진행되고, 참가 한식당의 1가지 이상 대표 메뉴를 국민 누구나 최소 20% 이상 할



2020 코리아 고메위크 홍보 포스터

인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다.

아울러 국산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농협 하나로유통과 협업체가 참가한 한식당은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국산 식자재를 구입하고 농협은 추가 할인과 포인트를 제공한다.

국민 참여 확산을 위해 릴레이 캠페인, 리그램 등 다양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이벤트가 진행된다.

/한용수 기자